

# '카드 돌려막기'도 어려워진다

4인 가족을 둔 주부 박모(52·광주시 북구 운암동)씨. 생활자금을 위해 '급전용'으로 사용하던 신용카드 카드론이 지난 8월 막혔다. 최근 금융당국의 카드론 견제 등 가계대출 제한정책 때문이다. 당장 돈이 필요한 박씨는 시중은행 등 대출을 위해 문을 두드렸지만 '폭 박한' 대출제한 정책 탓에 어디서도 돈을 구하지 못했다.

결국 박씨는 연리 20%가 넘는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기를 모면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지나친 가계대출 제한 정책이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올려 서민들을 유죄자 제2금융권을 넘어 대부업체 등 사금융까지 손대는 서민들이 느는가 하면, 카드론 제한에 따른 현금서비스 급증의 '풍선효과'까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2장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정보공유를 강화, 카드를 이용한 연체금 돌려막기까지 막는다는 계획마저 내놓았다. 정부의 정책이 성과를 거둬 연착륙한다면 서민

## 금융당국, 카드 2장이상 사용자 여신정보 공유 현금서비스·대부업체 이용늘어 신용불량자 양산

가계의 건전성이 좋아지는 등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규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부업체·현금서비스 이용 급증 = 지난달 29일 민주당 이상남 의원실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3~6월 카드론이 600억원 증가하는 사이 현금서비스는 3200억원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카드론 고객 수는 3만명 늘었지만 현금서비스 고객은 23만명 급증했다.

통계에 따르면 카드론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8조2000억원에서 올해 3월 18조6000억원으로 4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견제로 지난 6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18조6600억원을 기록하며 600억

원 소폭 증가에 그쳤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로 생활자금 쪼마한 서민들은 대부업체나 사채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최근 대출업체 현황에 따르면 대형 대출업체인 A사의 신규대출 현황은 7월 375억원인데 비해 8월에 446억원으로 18.9%가 급증했다. B사도 142억원이던 8월 대출이 18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저신용자 대출 외면, 카드 돌려막기마저 막아=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부위원회 배영식(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신용정보(NICE) 자료에 따르면 저신용층으로 분류되는 7~10 등급자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124조2000억원으로 총가계대출(895조1000억원)의 13.9%였다. 지난 2009년 말과 비교하면

가계대출 잔액은 11조7800억원, 대출 비중은 2.1%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은 838조4200억원에서 895조1000억원으로 46조6800억원이나 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확대 경쟁 속에서도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대출만 줄인 것이다.

같은 날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내놓은 신용카드 시장 건전화 방안에 따라 신용카드 2장 이상 소지자 정보 공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 공유가 이뤄지면 카드 1장의 연체금을 다른 카드의 현금서비스로 매울 경우 카드사 간 정보 공유로 곧바로 적발되게 됐다. 한마디로 신용카드 연체금을 돌려막는 길이 막힌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가계대출 규제에 의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더 큰 이자부담은 물론, 저신용자 급증과 신용불량자 양산마저 우려되고 있다"며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대방노블랜드 '10.58:1' 청약 돌풍

광주 수완지구에 분양 중인 대방건설의 '수완 13블럭 대방노블랜드'가 광주지역에서 1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을 경신하며 청약 돌풍을 이어갔다.

15일 대방건설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5일 대방건설의 '수완 13블럭 대방노블랜드'에 대한 청약접수를 마감한 결과,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0.58대 1을 기록해 광주지역 역대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전체 627가구 모집에 8112명이 접수해 평균 12.9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순위 내 청약에 마감했다. 115㎡(42평) A형 463가구는 3순위 청약에 6799명이 몰려 19.0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B형 35가구는 3순위에서 11.89대 1

## 수완지구 627가구 분양...광주 최고 경쟁률 경신



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청약 돌풍은 이 아파트가 명품신도시로 인기가 높은 수완지구에 위치해 있는데다, 인근에 호수공원·풍영정천·완동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학군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또 남향위주 배치와 무인택배시스템, 혁신적인 평면 및 첨단시스템 설계, 고급 마감재 적용 등 첨단·고급화하고, 시스템에어컨·빌트인냉장고·블박이장 등 서비스 품목을 제공하는 등 수요자들을 배려한 것도 한몫했다. 견본주택은 수완지구 롯데마트 건너편에 있으며, 계약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이다. 이 기간 동안 계약하면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와 발코니확장비 특별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분양 문의 1688-3800. /박정욱기자 jwpark@

## 국세청, 체납 추적 1조 903억원 징수

국세청은 고의로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 및 상습체납자 관리를 위해 지난 2월부터 6개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가동, 지난달말까지 1조903억원의 체납세금 징수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현금 징수는 8,739억원, 부동산 등 압류는 799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한 채권 확보는 994억원이다. 여기에는 국내 거소번호로 신분을 숨기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해외영주권자 등 528명의 채권 147억원과 해외 부동산 취득체납자 81명의 채권 57억원도 포함돼 있다.

추적조사과정에서 증여 등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371억원의 증여세 등을 별도로 추징했다. 특히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기획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재희기자 lion@



올 가을 핸드백 트렌드는 붉은색 14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잡화매장에서 한 고객이 올 가을 유행할 핸드백을 살펴보고 있다. 올해 F/W 시즌에는 전통적인 분위기의 디자인이 강세를 띠고, 기본 색상인 베이지 계열과 따뜻한 색상의 빨간색이 유행할 전망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기업 43% "매년 고졸채용 수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312곳(대기업 154개, 중소기업 158개)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매년 고졸 인력의 채용 수요가 일정하게 있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43.3%였다고 15일 밝혔다.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은 매년 평균 36.6명의 고졸을 고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46.8%(1개사 평균 48.8명), 중소기업의 39.9%(22.7명)가 고졸자를 해마다

채용했다. 대한상회의는 "대기업이 약 2천500개고 중기업이 50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3만개인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마다 30만개 이상의 고졸 일자리가 생긴다는 의미"라며 "매년 15만명 선인 전문계고 졸업생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채소·과일값 30% 내렸다

### 연휴 지나 소비 감소...배추·무·사과 등 일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채소와 과일가격이 다소 하락했다. 15일 농협유통에 따르면 농협 하 나로클럽 안재점을 기준으로 이날 무(1개)와 배추(3개)의 가격은 지난주

와 비교하면 각각 34.7%와 32.0%씩 내려간 2480원과 8500원이다.

백오이(3개)도 32.1% 하락한 1900원에 시세가 형성됐으며 대파(1단)는 3.9% 가격이 내려 2480원이

됐다. 추석 때 제사용 등으로 수요가 많았던 사과와 배는 3개에 1만2900원씩 있었는데 이날 기준으로 각각 9900원, 7900원이 돼 23.2%와 38.8%씩 가격이 하락했다.

한우는 갈비와 양지 1+등급 제품 100g이 12.7%, 8.0%씩 내려간 4800원과 4580원이 됐고 등심은 7900원으로 전년와 같은 가격을 유지했다.

돼지 삼겹살과 목살(각 100g 기준), 생닭(851g)은 2790원, 2650원, 5930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연합뉴스

## 쇠고기 수입 줄고 한우 소비 증가

### 구제역 여파 가격 하락...8월에만 56% 늘어

올해 상반기까지 급증하던 외국산 쇠고기 수입이 지난 6월부터 한풀 꺾이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내리막길을 걷던 한우고기 소비량은 지난 4월부터 다시 증가, 추석을 앞둔 지난 8월 연 1년 전보다 56%나 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까지 수입된 올해 외국산 쇠고기량은 20만 1456t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6만 8921t에 비해 19.3% 증가했다고 15

일 밝혔다. 하지만 지난 6월 쇠고기 수입량은 2만4932t으로 작년 6월(2만5123t)에 비해 0.8% 감소했고, 7월과 8월 수입량도 19.2%, 4.1% 각각 줄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2만6725t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3055t)에 비해 19%나 줄어 들었다. 이 기간 호주산 쇠고기는 3만

5751t이 수입돼 작년 6~8월간 수입량(3만5468t)보다 약간 늘어 미국산 쇠고기와 대조를 이뤘다. 올해 3월까지만 3개월간 쇠고기 소비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0% 줄어들었지만 4월엔 16.4%로 늘어난 뒤 5월 42.9%, 6월 37.9%, 7월 29.2% 각각 증가했고, 8월엔 56%나 늘었다.

농식품부는 한우 소비를 확대하고 한우 사육두수를 조절하기 위해 내달부터 12월까지 한우 암소고기를 할인 판매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작년말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인해 한우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한우고기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고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회복돼 소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양식장 직영도·소매  
할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우이찜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곡지구  
연초제조창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50m

SK주유소  
롯데캐슬  
코카콜라  
해대제과

금광아파트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돌잔치, 피로연, 세미나 각종 모임 및 행사 (500석 완비)

소모임(룸) : 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대모임(룸) : 52인석, 92인석, 150인석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 일				토·일·공휴일			
이용시간	성인 (중학생 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생)	미취학아동 (5세~7세)	이용시간	성인 (중학생 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생)	미취학아동 (5세~7세)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금요일 DINNER는 주말요일로 적용됩니다.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 671-1199**

유·스퀘어 문화관 2F CGV 옆 터미널 2층